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 5:10)

지난 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13년은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역을 구상했었습니다. 20주년 때 추진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선교대회와 같은 행사도 계획에 포함되었지요. 그중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 공간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규모가 워낙 큰 까닭에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계획했던 그 밖의 크고 작은 행사들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 공간은 한 울타리 안에 몸담고 있는 정신학원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중앙일간지에서도 교회와 사회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로 보도하기도 했지요. 저의 재직 기간 중에 발의되고, 마침내 지난 연말에 멋진 모습으로 준공까지 하게 되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2014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교회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를 1년 동안 묵상할 표어로 정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지난 1월 6일 정기당회를 앞둔 박원호 담임목사와 짧은 인터뷰를 갖고, 이 표어를 제정하게 된 까닭과 새해를 맞는 소회와 소망을 들었습니다.

사역은, 케냐의 기독교교육연구소 건물을 착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문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기독교교육연구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인구의 70~80%가 기독교와 가톨릭을 믿고 있고, 종교 간 평화와 유지되고 있습니다. 케냐에 세워지는 이 연구소는 아프리카 기독교 교육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한국 교회가 기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동아프리카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도 이 의미에 공감하여 캠퍼스가운데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부지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를 맡으신 지 7년이 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식년을 맞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간의 여러 일을 되짚어보고, 또 교회의 미

래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케냐의 기독교교육연구소 착공식 이후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안식년 동안 제가 가장 집중하려 했던 것은 교회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성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과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저에게 남은 기간은 대략 2년 반 정도 될 터인데, 25년 역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가 그 터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에 공적신학연구회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신학’이란 공적인 삶과 연관되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신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번 모임도 교

회적,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에 대한 연구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 몇몇 기독교연구소, 장신대 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주님의교회를 한 사례로 삼아 연구해 보려 합니다.

지난 해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였습니다. 교회 안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 표어를 묵상하게 되었는지, 또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어떻게 실천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빛을 발하라”라는 말의 개념을 구체화하면, ‘평화’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표어의 초점은 밝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 동안, 평화에 대해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 3면에 계속

📖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6

중세 십자군 운동의 역사적 동기와 그 영향

십자군 운동이 시작된 동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십자군에 참여한 가난한 평민들의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란 학설과 11세기 중세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환상(Religious Fanaticism)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1950년 이후 점차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요구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당시 십자군에 참가하였던 중세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건전한 신앙형태를 보였다는 역사적 자료가 속속 소개됨으로써, 종전의 부정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또한 예루살렘과 유럽의 역사자료를 의존하던 종래의 연구태도에서 벗어나 십자군들의 공격을 받았던 아랍권의 시각에서 본 역사자료와 학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십자군 운동의 역사적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무엇을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십자군 운동에 동참하였을까?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학적 역사해석에 의하면, 십자군 운동은 가난한 농민들의 사회적 신분의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계급이 자신들의 신분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사유화하면서 시작된 중세 봉건제도 하에서, 일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당하고 살았다. 그러나 11세기 들어오면서, 계속되어온 봉건 영주들의 무력증강 때문에 지금까지 소작농으로 머

물려 있던 일반 평민들 사이에 일종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봉건 영주의 직속부하로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기사계급과 농민으로 구성된 일반 전투병력 간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로마제국의 군대에서 '보병'의 뜻으로 사용되던 'Miles'가 창과 칼 등으로 중무장한 '기병'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일반 농민 출신의 군사들이 기사들과 같이 말을 타고 중무장하기 시작할 그 즈음에, 제1차 십자군 운동이 시작됐다. 일반 보병과 달리, 말을 타고 전투에 임한 기병들에게는 특히 집단생활을 통한 훈련과 강한 결단력이 요구되었다. 십자군 운동에 동참하여 기사들과 같이 말을 타고 중무장한 농민출신들은 이제 더 이상 남루한 옷을 입고 빈약한 무기로 싸워야 하는 보병이 아니었다. 십자군 운동은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십자군 운동이 일종의 '복음주의'적인 흐름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11세기 유럽의 기독교 문헌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죄책감이 일반 기독교인들을 과다하게 억누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세 유럽의 제한된 거주환경과 밀접한 공동체 생활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죄는 곧바로 그가 속한 집단에게 쉽게 알려졌으며, 이러한 죄의식을 극



복하기 위한, 참회제도(Penance)가 교회에서 발전되어 갔다. 물론 교황이나 감독의 원래 계획과는 달랐지만 십자군 운동은 특히 중세인들의 참회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하는 순례는 11세기 중세인들에게 참회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상승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지난날의 죄를 일시에 참회할 수 있다는 십자군 운동의 호소력은 당시 11세기 일반기독교들에게 엄청난 견인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제1차 십자군 운동에 참여한 일반 농민들은 아랍문명과 이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다. 십자군 운동에 따라 나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증오심보다는 자신을 향한 참회의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이다.

후기 십자군 운동은 무력 사용을

통한 성지회복이라는 군사적 의미에서 서서히 아랍 무슬림에 대한 선교로 그 1차적 목적이 수정되어 갔다. 이집트 무슬림을 향한 제5차 십자군에 동참했던 성 프란시스(St. Francis, 1182~1226)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십자군을 통한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은 중세 기독교 신학이 새롭게 정립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라몬 룰(Ramon Lull)의 선교 신학적인 견해가 십자군을 통한 두 문화간의 만남을 통해 연구 발전되었다. 또한 십자군 운동을 통하여 유럽사회에는 많은 내부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화폐 사용을 통한 경제발전과 은행제도, 새로운 세금제도, 이탈리아 상업도시들의 성장 등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신대륙을 향한 탐험이 시작될 수 있는 경제적 배경도 형성되었다.

이강찬 목사

📖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4

傳道書

(전도서 The Books of Ecclesiastes)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1~2)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설교자(preacher) 또는 전도자(teacher)라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시아스 테스”에서 借用(차용)된 영어이다. 솔로몬이 인생 황혼에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며 기록한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허무한 삶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근본임을 가르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傳(전할 전): 만물의 靈長(영장)인(사람인)의 변형체 人(사람인)과 專(오로지 전)의 합자로써 ‘사람만이 후세에 기록을 남겨 오로지 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道(길 도): “사람, 우두머리”를 뜻하는 首(머리 수)에 “길, 가다”의 뜻이 있는 辵(쉬엄 쉬엄 갈 착)의 변형

체 辵(책반침)을 결합하여 ‘사람이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곳이 길이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書(글 서, 책 서): “필기구 聿(붓)과 “말하다”의 뜻이 있는 言(가로)을 합쳐 ‘붓으로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글이다. 이러한 글을 모아 엮은 것이 책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줄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관 준공

준공 감사예배와 함께 정신학원에 헌납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관이 지난해 3월 착공, 10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되어, 지난 27일 오후 2시, 소예배실(애니앨러스홀)에서 주님의교회 교우와 관계자, 정신학원 관계자 등 50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감사예배를 올렸다.

정신학원 이사장인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는 “비전과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장 7~9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믿음 속의 비전으로 새롭게 되는 소망 속에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닌 새로운 역사 비전을 가지고 세속화되지 않은 근본을 지켜 새로운 마음의 옷을 입자고 강조했다.

다목적 교육관은 2012년 7월 정신여자중학교가 교과부로 부터 선진형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선정된 후 정신학원에서 건립 지원을 주님의교회에 요청하였고, 주님의교회에서는 창립2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감사예배를 마친 후 박원호 담임목사는 이 건물을 정신학원에 헌납하는 증서를 정신학원에 전했다.

다목적 교육관은 지상 5층으로 1층과 2층은 도서관, 3층과 4층은 교과교실, 그리고 5층은 다목적홀로 사용될 예정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교우들은 이 건물을 통해 정신학원에 더욱 큰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이 곳에서 자라는 모든 이들이, 소망과 비전을 가진 청소년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다목적 교육관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함줄함울



1. 다목적 교육관 전경
2. 준공 감사예배 정신여중 합창단 찬양
3. 참석 인사들의 리본 커팅
4. 헌납증서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되는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1월 6일 <함줄함울> 취재진에게 새해 표어의 의미와 소망을 설명하는 박원호 담임목사.

> 1면에서 계속

당연한 말이지만, ‘평화’라는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실천의 방향도 다릅니다. 사회에서 쓰이는 의미도 다르고, 나라마다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여기저기에서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자칫하면 구호에서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에서 바라보는 ‘평화’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성경적으로 ‘평화’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반을 둔 ‘평화’는 사회의 개념과 좀 다를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교회의 관점도 물론 ‘성경적 평화’에 바탕을 두고 연

구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평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올 한 해 동안 교회의 여러 사역과 행사를 통해 실천해 보려 합니다. 매년 진행했던 ‘다문화 걷기대회’를 ‘평화와 함께 하는 걷기 대회’ 등의 의미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경적 평화’의 개념을 교회 공동체가 느끼고 실천하도록 하려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지켜온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 본질의 회복을 향한 선도적인 교회의 몫을 자임해 왔고, 대부분의 성도가 이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 않은가 고백과 통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창립 정신은 참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교회 안팎으로 확장되고, 또 공동체의 모든 지체에 내면화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서로 생각이 다른 많은 개

인들이 교회로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의 내면에서 교회 안팎이 함께 할 보편적 가치를 추출해내어, 밖으로는 다른 교회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이를 확산하도록 하고, 안으로는 뒤늦게 합류한 공동체의 여러분들도 이를 내면화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교회 창립 정신을 통해 지향했던 교회의 본질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자각을 드러내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통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여러 구성원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 ‘주님이 택한 소중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줄함울

> 이 면은 교회의 세대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번호에는 청년부에서 기획, 취재, 편집을 맡아주었습니다. **함글함글**

영광의 다섯 주일

2013년 청년부 대림절 영성훈련



청년부 대림절 기간 영성훈련 일정

청년부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대림절 영성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묵상주제를 정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1주차(12.1~7) : Wait Week(기쁨의 기다림)
- 2주차(12.8~14) : Repentance Week(회개의 빛)
- 3주차(12.15~21) : Share Week(천사의 나눔)
- 4주차(12.22~28) : Joy Week(기쁨되신 예수)
- 5주차(12.29~1.3) : Thanks Week(사랑의 감사)

1st Week : Wait Week(기쁨의 기다림)

청년부는 대림절 첫째주를 맞이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중에 배실을 장식했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기도문을 낭독하고 초를 밝히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nd Week : Repentance Week(회개의 빛)

대림절 둘째주에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자 결단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엔젤트리' 행사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 도울 지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rd Week : Share Week(천사의 나눔)

청년부에서는 대림절 셋째주를 '나눔의 주'로 정하여서, 매달 방문하는 '아름다운 꿈 지역아동센터(송파구 마천동 소재)'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아동센터의 초중생 47명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년부 30여명의 지체가 일일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다채로운 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 말씀새벽기도회

청년부는 12월 16일(월)~20일(금)까지 '겨울초대장(살전1~5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 말씀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데살로가니가 전서의 '강림'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4th Week : Joy Week(기쁨되신 예수)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22일 주일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챔버팀과 브릿지 중창단 합주, 남진주 간사의 특송으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팀이 준비한 성극 <Les Misrables(레 미제라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천역 근처에서 진행된 노방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th Week : Thanks Week(사랑의 감사)

대림절을 마무리하며, 청년부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주'를 기획했습니다. 한해의 여러 사건을 영상을 통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장단-교역자-지체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마음껏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청년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덴나무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주님의 교회는 학원선교와 신앙교육을 위하여 기독교 여성 지도자의 산실인 정신 학원에 이 집을 드립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가 정신 학원에 처음 기증한 강당의 머릿돌에 새겨진 글이다. 지난 27일 교회가 정신 학원을 위해 지은 다목적 교육공간의 준공예배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다. 참 아름답고 다양한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돌아보면서, 주님의교회가 또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냈구나를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이 교회와 학원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개방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다목적 교육 공간의 본래 취지에 딱 들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열린 교회의 한 전형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교회나 학원측이 예배처소나 강당의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개념으로부터 자유하여, 열린 생각들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교회와 학원이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를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 자그마한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싶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분의 뜻이 어디 있나를 헤아려 보고, 그 뜻을 받드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 한 가지 과거 우리의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대부분 교회와 학원의 관계가 수직적인 점에 비추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발전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좋은 관계가 주님의 교회 역사와 더불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되돌아 볼수 있는 이런 뜻 깊은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앞선 의식구조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작은 한 알의 밀알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세상에 무수한 교회들이 많고 신자들도 많으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이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놓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값진 알곡 교회로 가꾸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내 교회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더 사랑해야겠다.

박규택 안수집사

신임 교역자 소감 _ 김대환 목사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길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개구쟁이 아들로, 순둥이인 줄 알았으나 커갈수록 새침뻐기가 되어가는 딸 위나와 함께 2014년 주님의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된 김대환 목사, 한주희 사모입니다. ^^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하는 가운데 선교적 목사로, 선교적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던 중, 감격스럽게도 주님의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우신 주님의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되신 주로다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전도서, 아가 편

* 두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1.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 ○ 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 ○ 을 주장하여 ○ ○ 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전8:7-8)

2.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 ○ 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3:13)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능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 ○ 이라 (전5:19)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 ○ 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너는 나를 도장같이 ○ ○ 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아8:6)

4.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 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하도다 (전1:8)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 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구나 (아4:1)

5. ○ ○ 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1:18)
○ ○ 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전7:19)

부르심의 길에 서서

주님이 함께 걷는 이 길



2002년 월드컵이 한참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을 무렵 군에서 제대한 한 대학 청년이 교회에서 1:1제자훈련을 하게 되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는 가슴을 뜨겁게 했다. 제자 훈련에서 만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관여하시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눈가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듬해 추운 겨울과 함께 눈 내리던 날에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 1)”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봄이 찾아오고 새싹이 돋을 때, 다시

한 가지 질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때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노을처럼 사그라져 간다.

“복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지금도 가슴 한켠을 어루만지고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이 또 있을까?

눈발 사이로 발걸음을 옮겨가며 혼자 걷는 이 길에서 옆에 선명하게 또 다른 발걸음의 자국들을 바라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의 주인이 주님임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다.

이은석 전도사

‘비움’은 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마도 이 땅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럽지 않은 마음이겠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욕망과 거짓과 불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청결함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자기의 의’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이니, 그것을 청결하게 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청결은, 그러므로 자신을 투명하게 비우고 모든 삶을 예수님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니, 삶을 통해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단신

2013년 퇴임식



2013년 12월 29일 3부 예배에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 항존직 안수집사와 권사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박원호 담임 목사와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은 오랜 성역 끝에 은퇴하는 김청옥, 송국환, 김동일, 박흥현, 정양재 안수집사, 허영자, 한은수, 이영남, 이정원, 이희숙, 박형자, 김명애, 김정순, 이광자, 장순현 권사, 다른 임지로 떠나는 이강찬, 권대선 목사, 10년 동안 맡았던 살롬찬양대의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동훈 안수집사의 퇴임을 축하했다.

함글함글

주방부장 이취임식



지난 12월 29일 새벽, 주방부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전임 박지원 권사에 이어, 후임 김진숙 권사가 2014년 1월부터 주방부를 담당하여, 주님의교회 명물인 국수의 맛과 영양을 책임지게 된다.

함글함글

유아세례식



2013년 12월 25일 성탄예배에서 유아세례식이 진행되었다. 권노아, 권윤이, 김건우, 김세령, 김예원, 김유은, 김재승, 김지유, 김진원, 김태민, 노하주, 박주하, 박지훈, 배정민, 백지환, 신이수, 우지민, 유지우, 이루아, 이안, 이수아, 이예은, 이재인, 이준혁, 이지윤, 장준수, 정소윤, 정은송, 정지후, 채지우, 최예찬, 최윤슬, 황현우아가 이날 박원호 담임목사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다.

함글함글

교회사역일정

- 1. 13(월)~18(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 1. 15(수): 공동의회
- 1. 26(주일): 제직수련회
- 2. 3(월): 정기당회
- 2. 7(금): 금요기도회

담임목사 안식년 일정

- 1. 20 ~ : 유니온 신학교 이사회
- 2월초: 형가리 신학교(더브레넨) 강의
- 2월말: 유니온 신학교 강의
- 3월말: 귀국예정